한국농어촌공사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농어촌 愛 그린가치 ESG 2030

보도일시	2022. 9. 2(금) 15:00	배포일시	2022. 9. 2(금) 15:00
담당부서	안전경영실 재난안전부	책임자	부장 박주철(061-338-6711)
		담당자	차장 이주형(061-338-6715)

농어촌공사, 힌남노 북상으로 철저한 대비에 총력

- 긴급 안전대책 영상회의 열고 선제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주력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대비해 이병호 사장 주재로 전국 93개 지사가 참여하는 긴급 안전대책 영상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공사는 8월 30일부터 전국 저수지 3,421개소와 배수장 979개소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공사현장 1,134개소에 대해서는 위험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힌남노'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 사전방류를 통한 수위 조절에 들어갔으며 배수장 등의 시설물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상태를 점검했다.

공사는 특보상황에 따라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태풍 경로를 모니터링하며 전국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배수시설 관리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수리 시설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주민 안전조치 및 위험지역 야외 활동 자제 안내 등 태풍이 완전히 소멸되는 시점까지 철저한 대비와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호 사장은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취약시설에 대한 각별한 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